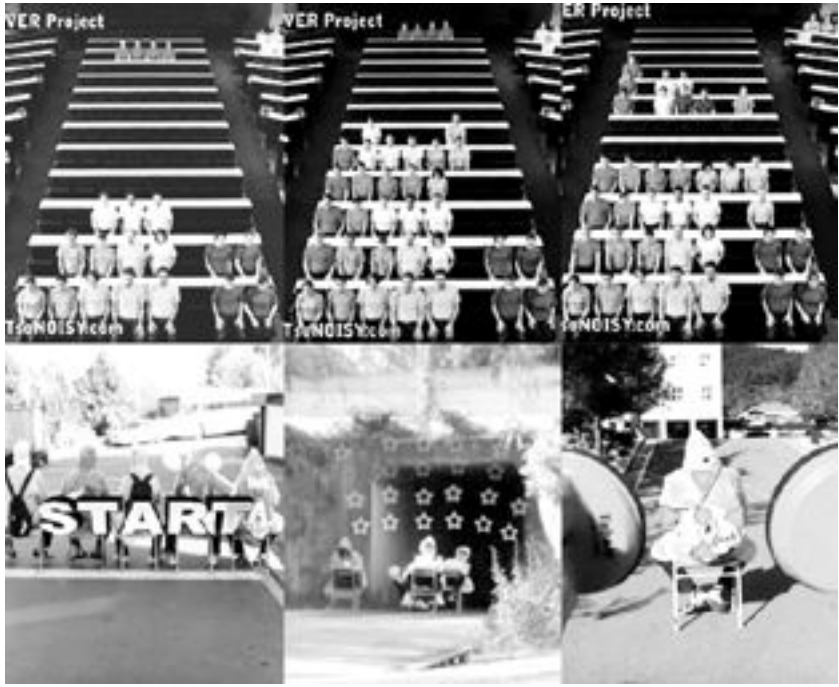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게임속 테트리스·카트라이더 현실서 재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테트리스'게임과 컴퓨터 모니터로만 펼쳐지던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를 실재로 재현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테트리스의 경우 계속 떨어지는 7가지 패턴의 블록을 꺾 맞춰 가로 한줄을 가득 채우면 그 줄이 사라지는 단순한 퍼즐형의 게임으로, 80년대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동영상 속 '인간 테트리스'는 7가지 모양의 블록 대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차이점. 게임 속 블록 색깔과 동일한 옷을 입은 인간 90여명이 참여했고 8명이 가로 한줄로 의자에 앉게 되면 그 줄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난 10일 네이버에 올라온 뒤 15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고 "얼마

나 많은 사진을 찍었을까, 제작자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의 댓글 수백개가 붙으며 퍼날라지고 있다.
자동차를 타고 경주를 벌이는 게임인 카트라이더를 재현한 동영상도 화제를 모았다.
경남 남해제일고 2학년 7반 학생들이 만든 '결상 라이더'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경주를 벌이는 내용을 담은 2분 26초짜리 동영상. 학교 인근 도로와 교실 복도를 결상을 들고 돌아다니며 수백 컷을 촬영한 뒤 게임 속 효과음과 배경음악, 아이템 등을 집어넣었다.
최근 네이버 동영상 코너에 올라온 뒤 조회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책

2007년을 돌아볼 때, 비교적 음악영화가 많았던 것 같다. 영화 '어거스트 러쉬'는 그런 영화들 사이에서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화 속 소년은 'Music is all around us, now all you have to do is listen (음악은 어디에나 있어요, 듣기만 하면 돼요)'라고 말한다.
예술의 모든 장르들은 대개 그들 고유의 표현 언어를 갖고 있다. 영화 역시 '영상 언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어거스트 러쉬'의 영상언어는 "예술은 자연의 반작용"이라고 말하기 시작



통하지 않는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개 안다.
결국 '어거스트 러쉬'는 할리우드식 몰입형의 음악영화로, 거기 나오는 보름달처럼 가득찬, 그래서 여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흥행에 실패할까 두려웠을까 조바심을 낸 흔적마저 느껴지는 데 느린 걸음 침착한 걸음

귀갓길 듣고 싶은 음악 '어거스트 러쉬'

해서, "천재는 그를 둘러싼 환경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견출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타고 날수록 좋다. 게다가 사람은 거기에 알 수 없는 큰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음악에 공존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음악은 바흐, 교회음악, 블루스, 재즈, 록, 최근의 바리톤 기타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만들어진 음악들이 약 두 시간짜리 영화 안에 가득 들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영화를 보고 나서 '존 레논'이 했던 생각을 되새긴다. 음악(예술)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비싼 장비와 가장 비싼 스튜디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통의 거실에서 2트랙 녹음기로 녹음한 음악이 가장 많이 팔린 음악이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의 생각은 영화화해도 예외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저예산 영화 독립영화는 존재감이 없어야 할 것이다. 황금만능주의가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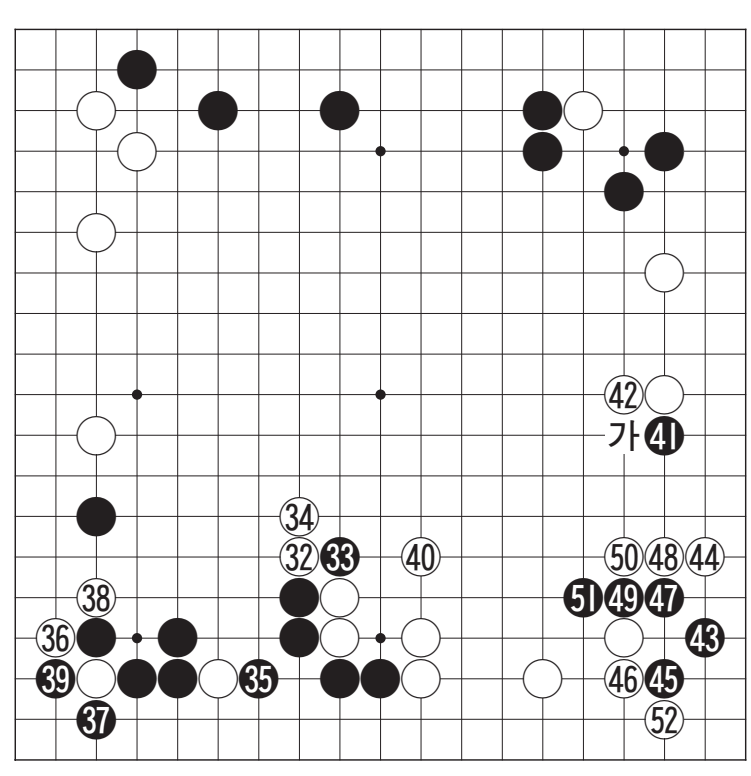
뉴스퀴즈

93. 한국축구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에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이 감독은 내년 2월 시작되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경기부터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7년 만에 국가대표팀의 국내와 감독시대를 연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①허정무 ②김호 ③차범근 ④김정남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3일(음 11월 4일 辛巳)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제188회 전국체전 흑 41의 체면 때문에 3보(32~52)
일반부 결승전
백 송홍석 6단 (경기도)
흑 김남훈 7단 (광주시)
백 32로 짓혀 모 양짜움의 양상이 다. 흑 35로 지켰을 때 백 36으로 활용을 당한 것이 매우 아프다. 이것으로 이곳의 흑 집은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
송홍석 6단 38까지 선수활용을 해놓고 40으로 지키자 오른쪽의 백 모양이 한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김남훈 7단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편을 초토화해야 한다고 보고 기합을 넣어서 흑

바둑소식
이세돌-박영훈, 17일 결판
박영훈 9단이 12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 제4국에서 이세돌 9단을 234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박영훈은 초반 2연패를 당하는 바람에 바람 끝에 불꽃처럼 내리 2판을 따내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영훈 9단은 초반부터 시작된 복잡한 전투에서 두터운 포석으로 이세돌 9단의 행마를 묶은 뒤 우편 침입에 성공,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뒤 승부를 마무리했다.
결승 5번기 최종국은 오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우승상금은 5천만원(준우승 1천200만원)이다.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You just have to follow the instructions...), Japanese (断(ことわ)るのに大変だよ...), Chinese (你做什么工作? ...), and Korean (삼수갑산(삼수갑산) ...). Each column includes a short dialogue and vocabulary/grammar notes.